

개량 토종닭의 안정적인 생산·유통 기반마련이 시급하다

지
 난 10월 10일 대전
 유성에 모인 20여명의 개량
 토종닭 종계 생산자들이 불법
 종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로써 실용계 농장
 및 소비자까지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
 다.

◇ 취재 / 김종준 기자

2년여간의 진통 끝에 한협협력체 구성

개량토종닭 생산자들중에는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몇대에 걸쳐 업을 이끌어 온 분들이 많다.

특히 죽전부화장(대표 이순오)과 한협육종(대표 박성진) 등이 개량 토종닭 생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토종닭 생산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토종닭



◇신토불이 토종닭 살리기 등 국내 토종닭 보존 및 불법 종계 및 병아리 고발센터를 운영할 한협 협력체 가족들(앞줄 중앙 이순오 회장, 뒷줄 오른쪽 2번째 박성진 총무)

업계를 이끌어 가는데는 불법 종계 근절, 생산자간에 정보교환과 유통의 안정, 소비자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2년전부터 조성되었지만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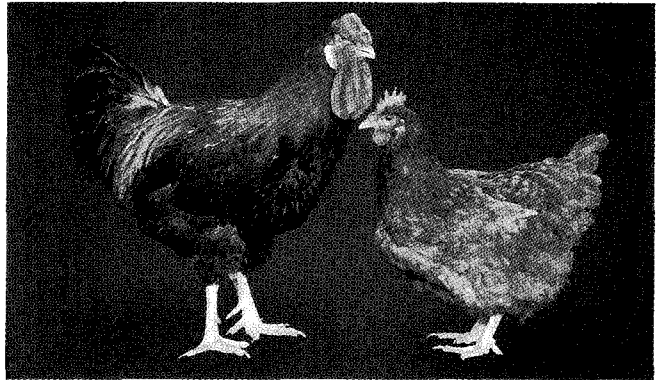
그러다 지난 10일 대전 유성에서 국내 유일의 민간육종업체인 한협육종과 죽전부화장 등 20여개 개량토종닭 종계업자들이 모여 이러한 업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마침내 한협협력체를 발족하게 되었다.

협력체의 초대 회장은 이순오 죽전부회장 사장이 선출되었고, 총무는 한협축산 박성진 사장, 전남지부장은 이춘겸 풍년부회장 사장, 전북지부장은 김동진 뚝뚝이 농장 사장, 충청지부장은 김근부 영동부회장 사장, 경상지부장은 최재철 진주부회장 사장이 각각 선임되었다.

불법 종계 및 병아리 고발센터 운영

한협협력체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유대강화와 함께 개량토종닭 시장에서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모임 구성원을 종계 및 부화장 뿐만 아니라 개량토종닭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한협협력체는 한협육종에서 생산되는 한협 1호, 3호, 8호가 아니면 불법종계라고 규정하고 불법 종계 및 병아리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불법 종계 생산자가 다시는 업을 이어 나가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고, 토종닭 고기맛도 균일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인지도



를 높이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토종닭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부분의 정보수집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안정된 개량토종닭 시장여건을 마련키로 하였다.

계열화 도입 추진계획

한협협력체 박성진 총무는 경영을 안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열화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후발업체에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꾸준하게 준비를 할 계획에 있고 필요하다면 정부 자금지원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순오 회장은 토종닭 시장은 일반 육계시장에 밀려 너무 홀대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모든 방면에서 업계 선두에 설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한협협력체는 “한우 살리기” 처럼 “신도불이 토종닭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토종닭을 보존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계**